

# 물 백화점

Water Department State

글. 우다영 Woo, Dayoung · 소설가

몇 년 전 어느 여름날 그 백화점에 물이 흐른다는 걸 알게 됐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고, 아침부터 한 가지 일을 끝내면 또 처리해야 될 일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상한 날이었다. 손만 대면 물건이 우수수 떨어지고 길을 걷기만 해도 흙탕물이 튀었달까.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와 그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에 늦을까 봐 택시를 잡아탈 때조차도! 눈앞에서 번번이 다른 사람에게 택시를 뺏겼던 것이다. 나는 좀 분하고 심통이 난 채로 백화점에 들어섰다.

사실 그 백화점은 내가 사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백화점으로 오 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다. 내가 스물한두 살 때 개장한 그 백화점에서 내가 안 가본 음식점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 백화점 카페에서 글을 쓰고, 백화점 스파 브랜드 매장에서 옷과 신발을 사고, 백화점 안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다. 심지어 지하철을 타러 갈 때조차도 역사로 연결된 백화점 통로를 걸었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거긴 백화점이라기보다 그냥 동네 골목이나 공원 같은 생활공간이어서 내부 조형물을 유심히 살펴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백화점 안을 조금 걷자 에어컨 냉기가 비에 젖은 옷과 살에 닿아 추웠다. 그러나 곧 물기가 마르자 바깥 날씨를 까맣게 잊을 만큼 쾌적하고 시원해졌다. 인공폭포수가 하얗게 부서지는 중앙 홀에서 친구를 만났다.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전문식당가로 올라갔다. 짬뽕, 소불고기, 스시, 라멘 전문점을 기웃거리다가 샤브샤브를 먹기로 했다. 샤브샤브 집 내부는 한옥과 자연을 접목시킨 친환경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매장 내에 굵이굽



이 냇물처럼 흐르는 인공 수로가 있어 정말 물이 흐르는 정자 위에서 밥을 먹는 것 같았다. 샤브샤브도 맛있었다. 맑은 육수에 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익혀 먹으니 개운하고 든든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식사를 거의 마쳤을 즈음 친구가 문득 수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이 백화점 제일 꼭대기 층에서부터 모든 층을 돌아 내려가는 물이야. 시내나 연못, 폭포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면서 흐르도록 조성된 아주 공을 들인 조형물이지.”

“멋지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 물은 고여 있으면 아주 무겁거든.” 친구는 손가락으로 높은 천장을 가리키며 딱딱하게 말했다. “그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야.”

나는 무거운 물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머리 위에서 흐르고 있을, 이렇게 큰 건물을 휘감을 만한 양의 무거운 물을 떠올려보았다.



“확실히 그건 좀 불안하네.”

“그렇지?”

“응. 지진이라도 나면 큰일이겠어.”

“지진이 날까?” 친구가 웃었다.

“이곳이라고 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

“어디에 지진이 났어?”

나는 차분하게 택시를 타고 오며 라디오에서 들었던 소식을 전해주었다.

“먼 나라에서 지진이 났대. 큰 산이 무너지고 건물과 도로가 종이처럼 휘어서 부서졌대.”

친구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런 특보를 왜 나는 듣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 전에 들은 건 빗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덤프트럭과 충돌한 사고뿐인데.”

순간 차갑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불과 한 시간 전에 내가 탔던 택시 옆으로 천천히 서행하는 덤프트럭을 봤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친구한테 하진 않았다.

친구와는 카페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옷을 좀 보고 서점을 둘러봤다. 귀 기울여 듣자 백화점 어디에서나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 줄줄줄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토록 도처에 깔린 물의 존재를 지금껏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다.

친구가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고 해서 나는 연결통로까지 배웅했다. 헤어질 때 친구는 최근에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넌지시 말해주었다.

재작년부터였을까, 더 이상 그 백화점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 여전히 물고기가 헤엄치는 인공 연못이나 폭포가 남아 있지만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저 단일한 조형물로 분리됐다.

재정난으로 백화점이 다른 회사에 팔리고 상호도 바뀌면서 야금야금 내부 공사를 하더니 그리 되었다. 아마도 관리가 힘들고 유지비가 많이 들었을 테고, 어쩌면 친구 말대로, 누군가 물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그 백화점을 자주 걷는데 밝고 따뜻한 색깔의 조명과 매혹적인 형태로 진열된 상품들을 바라보며 가끔 친구와 물 백화점 이야기를 하던 날을 떠올린다. 발아래 지반이 흔들리거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미끄러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도 느닷없이 불운을 만난 사람들. 또 내가 그날 무수히 놓쳤던 택시들을 떠올려보는 것이다. 그중 어떤 택시는 덤프트럭을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물 백화점이 있던 자리는 사실 텅 빈 공터였다.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없었다. 아파트도, 백화점도, 아름다운 공원도 없이 그저 모래바람 날리는 팔차선 도로와 구멍처럼 뺨 뚫린 신도림역 입구뿐이었다. 엄마 손을 잡고 그곳을 지나갈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에는 아무 것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영영 춥고 황량한 황무지일 거라고.